





## 今週의 人物

### 떠나는 宣敎2代 새뮤얼·H·모페트 牧師

# 한국의인이 한국의인다 올때 가장 아름답고 멋져

한국말을 써 잘해서 뿐만이 아니었다.長老會 神學大協同學長인 새뮤얼·H 모페트(韓國名 馬三樂)목사의 思考나 行動樣式, 식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질구레한 한국풍습을 지켜나가듯 그는 웬만한 韓國사람보다 더욱 철저하코 리아나이즈된 韓國人이었다. 이북땅 平壤에서 낳아 大同江에서 띄우고 65년동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苦樂을 함께했던 모페트목사는 청년을 맞아 8월중순 미국 프린스턴大學에서 宣敎學을 가르치기 위해 고향 한국을 떠나 미국에간다. 父子2代에 걸쳐 90여년동안 이 땅에서 선교를 하고 독립운동을 돕고 배움을 베풀어 온 모페트목사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자기生家가 있는 平壤에 못가보고 귀국하게 된 것을 가장 서운하게 여겼다.

#### 정말 떠나기 섭섭해

「과란 는애 큰키, 제스처를 섞어가며 서글서글하게 말씀하시는게 영락없는 西洋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앞아서 얘기할 줄이야봐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나이 많은 아저씨같이 기분이 듭니다. 올해 65세가 되셨다니 여기서 나서 한평생을 한국사람들

과 호흡하고 울고 웃으셨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태어난곳을 흔히 고향땅이라고 하는데 낯선 美國땅을 향해 한 국말을 떠나는 울적하고 착잡한 심정부터 말씀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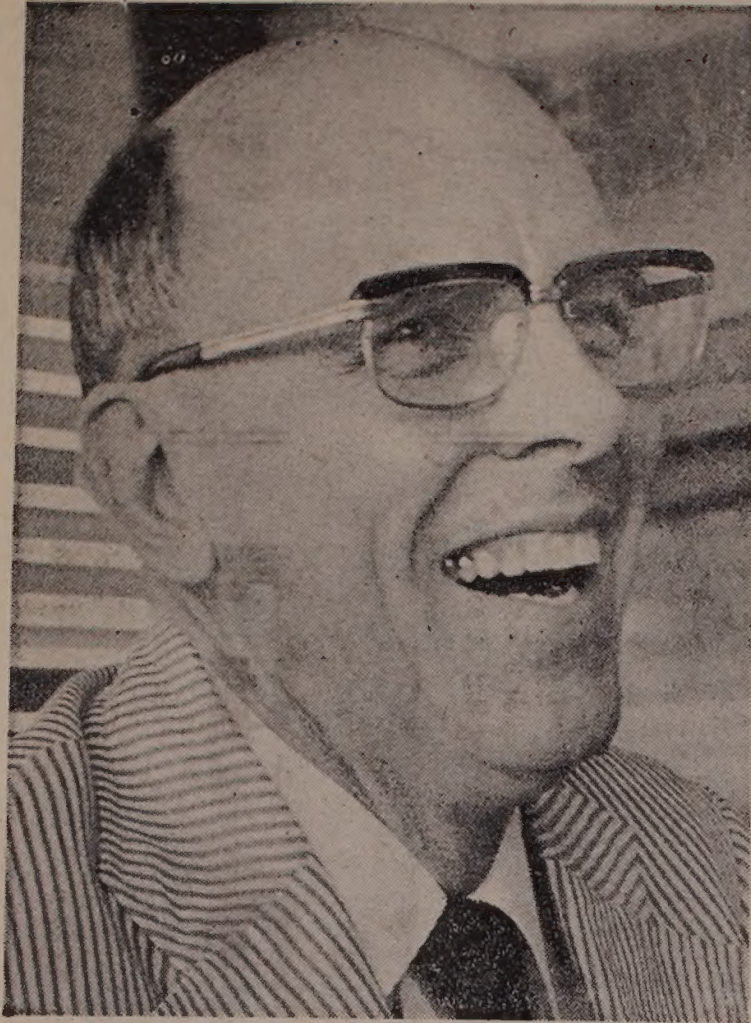
「모페트목사「아주 섭섭합니다. 흔히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도록서

한국에서 태어나 이곳 친구들과 함께 뛰놀며 때가 넘어진 제가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나와 똑같은 境遇와 인생을 살아오지 않은 분이 심사의 이해할수 없을 것입니다. 「톰스·윌리(Thomas Wolfe)의 小説題詞인 You can't go home again이란 말처럼 眞情은 母國을 떠나야 한 다고 생각하니 착잡한 마음 을 가할 길이 없어요.

한국의 옛 時調에 5백년 都邑地를 필마로 돌아드니山川은 의구한데 인건은 간데 없네」라는 말이 있지요. 바로 이 時調을 지은이의 哀絶한 마음 한 구석을 이제 서야 알듯 합니다. 비록 美國에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여름放學때마다 꼭 찾아 오겠습니다. 「生家가 平壤에 있다는 소 리를 들었습니다. 情은 친구와 아보자, 어포니의 愛情이 구석구석 배어있고 개구장이 동네꼬마들의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소리가 남아 있는 平壤에 못가보고 떠나는 마음도 무척 무거우리라고 생각되는데...」

「모페트목사「누구에게나 자기 태어난 집과 어린 時節을 보면 못의 鄉愁가 절 실 것입니다. 과란 는의 모페트라고 이 쪼 예의가 되셨습니까. 사실 부보판을 그리워하는 내 마음은 어느失鄉民 못지않습





# 平壤서 낯아 자랐으니 "난 틀림없는 失鄉民" 宣敎 100년, 先親 계선 많은 功績 남겨

니다. 失鄉民이란 말이 나왔으니 까 하는 얘이지만 이북에 친척이 없어도 저는 失鄉民임에 틀림없어요. 南北統一을 그리워하는 모든 한국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도 남지만 고향에 가고 싶은 내 맘속도 어느분 못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에 오랫동안 머

무는 동안 한번쯤은 평壤에 가 본수 있었음을 알았읍니다. 西門 밖 洋村이 내가 태어난 곳입니다. 바로 普通門 옆이었는데... 지금까지 옛집이 남아있을까 궁금은 하지만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무때고 南北이 타트이면 미국에서라도 제일 먼저 달려 오겠습니다.

◇『동은 떠나지만 마음은 영원히 이곳에 두고 갑니다.』 모페트 목사의 밝은 웃음뒤에는 고향을 떠나는 아쉬움이 짙게 깔려 있었다.

고향에 가는 길에 뒤쳐져서 야 되겠습니다.

## ■ 女性교육에 심혈 쏟고

— 모페트목사父子의 宣敎역사가 1백여년에 가까운데 부친인 새뮤얼·A·모페트(韓國名 馬布三悅)목사가 우리 나라에 오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 모페트목사 아버님은 1889년 미국을 떠나 1890년 1월 25일 이 땅에 처음 왔읍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등 초기 선교사의 한사람이 었읍니다.

平壤에서 선교사업을 처음 시작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곳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한 최초의 목사였읍니다.

아버님은 참 훌륭한 인물이 많았읍니다. 長老敎재단산하에 2백개가 넘는 크고 작은 學校를 세웠지요.

崇實大에서 崇田大로 발전해나간 平壤崇實學堂진립을 비롯해서 崇義學堂, 崇德學堂등을 세워 여성교육에도 심혈을 쏟으셨던것 같습니다. 학교를 많이 세워 한국의 청

년을 많이 가르치 이 나라의 近代化를 도운 것도 큰 업적이겠지만 獨立운동과 先親과의 워런 이야기도 참 많아요. 神社참배를 거부했다고해서 1936년 일제관련에게 추방명령을 받았어요.

추방명고서를 갖다 주며 30분안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때 눈앞이 캄캄하고 아찔하더군요.

日帝에게 민게 보인 것은 先親계서 神社참배를 안한것은 물론이고 기독교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참배를 권하지 않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3. 1 獨立運動때의 平壤시 위와도 관련있고 1백5인사件때도 활발하게 앞장섰읍니다.

후일에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정부로부터 文化功勞勳章을 받았지요.

— 宣敎사업은 물론 敎育과 獨立투쟁에 앞장선 先親의 옛 모습속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일들은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 모페트목사 정화환 年代는 기억못하겠지만 崇實학교 학생들이 학교교정에 모여 시위를 벌였을 때라고 생각됩니다.

높은 국기계양대에 太極旗가 펴리고 학생들의 외침은 하늘을 찌렀어요.

田警들이 물러와 太極旗를 장제로라도 내리라고 고향치는 것을 보고 先親계서 달려가 한국학생들의 손에 의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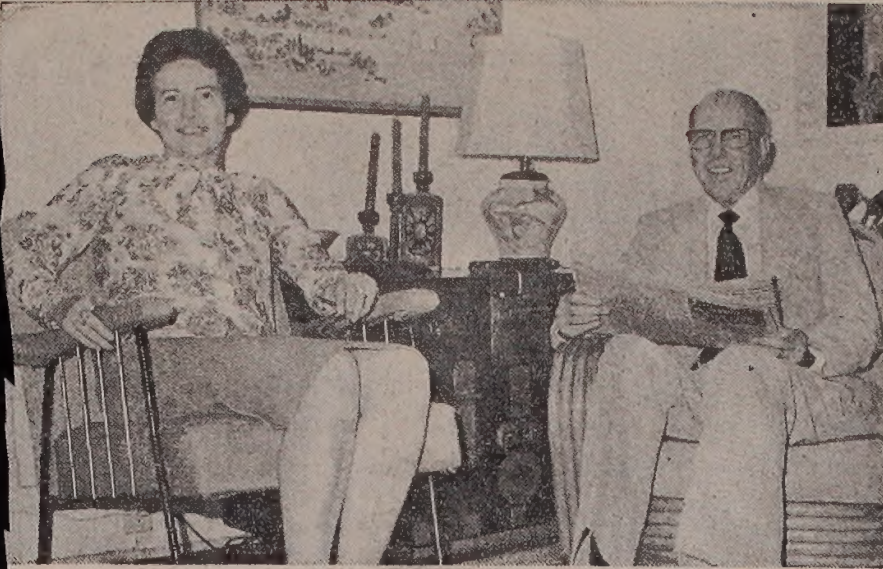


# 情든 친구들 모두 한국에 美國은 他郷

국기를 내리게한 다음 곧게 걸어서 先親이 이를 아주 정성껏 보관하셨읍니다.

先親께서 목숨보다 귀히 여겼던 太極旗를 현재 樂田大 박물관에 모셔두고 있습니다.

■平壤은 내 태어난故郷  
다시 고향 땅 平壤으로 말



◇이삿짐을 싸기에 바쁜 모페트 목사 부부. 가구와 서화는 은룡 아머님이 쓰셨던 피클은 골동품들이었다.

머리를 둘러앉읍니다. 서울과 平壤의 아름다움을 비교할 수 있겠읍니까. 그리고 平壤 땅과 함께 잊혀지지 않는 追憶이 있다면 들려주시십시오.

■모페트 목사 이름 다음을 비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겠읍니까.

저는 서울과 平壤을 따로 따로 떼어놓고 어느곳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어린시절이 강하게 남아 있는 곳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행선이 없지요. 북쪽의 고향 땅을 생각하면 늘 그리워지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延世大에 계시는 캐나다人 醫師 로브씨이고 또 한 사람은 제 한살아래동생인 大邱啓明大理事長 하워드·F·모페트(韓國名 馬布和悅)의 사입니다.

저희들은 그때 平壤外國人 歸國하면 宣敎學강의 작정

## 統一되면 제일 먼저 平壤에

上流층에 있다가 물이 하도 불어나는 바람에 높은 나무에 배를 잡아맸어요.

자꾸만 불어난 물이 점점 높아지면서 나무위까지 차버리는 거예요.

이젠 죽었다고 생각하자 아버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들을 격려했습니다.

서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舟」라고 말씀해 주시면 일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때 急流가 물러와 나무 뿌리를 송두리째 베버렸더라면 아마 영원히 물살에 휩쓸려 가버렸을 겁니다.

지금도 그때의 惡夢을 되새기면 겁이 납니다.

學校학생이 있었어요. 학교만 파하면 여름엔 大同江철교 아래서 떠잡고 가을엔 모란봉에 올라가 놀았읍니다.

이들과의 交遊가 고향의 꿈이었던 나에겐 惡夢도 있었어요. 첫 번째 것은 3·1만 세사건 이후 日警이 가택수색 때문에 단체운동敍文을 인쇄했던 기계를 발견했읍니다.

다음번은 을축년 홍수로 大同江이 넘쳤을때 하마터면 물에 빠져 죽을뻔한 일입니다.

그때 친구들과 가족들이 어울려 船遊하러 大同江에 나갔지요.

갑자기 쏟아진 비에 大同江물이 막 불어났읍니다.

지금도 그때의 惡夢을 되새기면 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믿고 있어요.

세계전쟁은 1927년 한국사람들만이 다니는 崇實學校 축구팀이 日本 대표팀을 격파했을때의 그 가슴 벅찬 감격입니다.

그후 우리 가족들은 강제추방당했읍니다.

저는 中國에 건너가 燕京大와 南京神學大 그리고 미국에 건너가 프린스와 예일大에서 神學공부를 했지요.

55년 선교사로 다시 한국

에 왔을때 나무기는 太極旗를 보고 이제 獨立된 韓國에 왔음을 실감했던 기억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고 있을 수도 없는 나의 메모리입니다.

## ■한국弟子들이 많아요

1부인 (Eileen, F. Moffett, 53)과의 사이에 자녀가 없어서 宣敎3대가 2대에서 끊어지는 것 같은 아쉬움이 많겠읍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페트 목사께서는 한국에서 長老敎神大 大學院長도 지내고 協同學長도 지냈읍니다.

저기다가 延世大와 樂田大의 理事도 역임했기 때문에 弟子들이 많아요.

비록 내 슬하에 아들·딸들이 없어서 先親과 저 그리고 고내 아들에 이르는 宣敎3대가 가지는 이어나가진 못해도 내가 가르친 수많은 제자들이 아버지와 나의 뜻을 받아들여 한국 땅 구석구석에 基督敎의 福音을 전파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저의 아들·딸들이고 저의 아버지와 나를 이어가시는 宣敎3대입입니다.

1모페트 목사님의 歸國이름이 무척 재미납니다.

어느분이 作名했고 그 뜻이 어떤 것인지 풀이해 주실까요.

■모페트 목사 이름은 先親께서 孔子님의 「三樂」을 본



라 지어 주셨읍니다.

「三樂」을 그대로 해석하면 세가지 기쁨이 아님이까. 첫째 기쁨은 양친 두분이 모두 다 계시는 기쁨입니다. 둘째 기쁨은 아보노파의 피년의 모두 다 하날나라의 잘 계시고 믿는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 계시다는 즐거움이 있지요.

둘째번 기쁨은 가족이나 가정 모두가 사회에 부끄러움의 없이 지낼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어버이를 공경하고 부부사이에愛情이 두터워야하고 兄弟사이에 우애가 있어야 하는 것이예요.

남에게 거리낌없이 벗어날 수 있는것이 바로 두번째 기쁨이겠지요. 한국식으로 말한다면 부끄러움없는 家門의傳統과 같은 것이라고 할수있읍니다. 셋째번 기쁨은 節弟간의 두텁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들 수 있겠지요.

모든 분야나 계층을 막론하고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과의 成果보다 유배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25년동안 이런 師弟관계를 통해 많은 열매를 얻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요니까 하늘에 두부 모님들이 잘 계시니 「一樂」이고 우리 가족이 세상의 부끄러웠었으니 「二樂」이 되니까가 르친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三樂」을 이루셨읍니다.



◇모페트 목사가 아버지(馬布三悅) 앞에서 있다. 이곳에서 태어나 때가 죽어간 모페트목사는 이제 65세의 老人이 됐다.

# 한국민족 優秀하나 과별만드는게 短點

아마 한국사람 가운데서 또 내이름만들이나 훌륭하고 뜻깊은 이름을 가진분들은 몇분 안되실겁니다. 「馬三樂」. 이 한국이름새 글자에 대해서 저는 늘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가 납작하고 얼굴이 황색인 우리들 한국사람 보다 더 한국적인 모페트목사께서 지적하고 싶은 韓國人の 長點과 短點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페트목사 말씀이요. 長點이 너무 많은 우수한 民族이

아무리 제가 노력하고 잘 해왔자 한국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短點을 지적해 달라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만 꼭 한가지만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사람들의 가장 나쁜 점은 「색트」. 다시 말해 과별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런 과별意識만 없으면 한국사람의 세계에서 가장 우

수한 민족이예요. 우수한 文化유산, 유구한 역사와 전통, 무엇하나 남의 나라에 뒤떨어질것이 없지않습니다. 이런만큼 꼭 고쳐서 한번 만들어선 나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부러워하느냐

라를 만들어 보십시오. 한국 자랑스런 內故鄉 아세아연한신관원 초대원장 미국연한장로교 추한대표로 계시면서 수고가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미국의 돌아가시면 이

편 일은 하십니까. 모페트목사 후임자가 어느 분이 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8월순순께 미국에 들어가면 母國인 프린스턴大學에서 宣敎學을 가르칩니다. 한국에서의 추억, 그리고先親에 이어 내가 받았던 박애와 苦難, 이 모든것들이 나의 강의를 충실히 해주는데 깊은 뜻이 있을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몸은 미국 땅에 잡니다. 하지만 정신은 이곳에 두고 잡니다. 누가 뭐래도 한국은 내가 태어난 금수강산이고 나를 키워준 大地입니다. 내 고향이 자랑스러울때 내가 자랑스러워지고 내가 자랑스러워지면 기쁘겠습니다.

부디 福만은 이 땅에 더 큰 福이 가득할 땅으로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음의 贈物이 있다면... 모페트목사 祝福만은 이 땅에서 誠心을 다해 봉사할수 있도록 주신해준 이 땅의 모든 분들에게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하나 韓國사람은 韓國사람다와 지킬 부단합니다. 아무리 西洋사람을 내내 봤자 한국인은 한국인입니다. 한국사람이 한국사람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멋진 기쁨은 무엇입니까. 南南氣지